

## - 선진 의회와 지역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국외연수 결과 보고

- 연 수 단 :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 연수기간 : 2018년 12월 26일~2019년 1월 1일
- 연수인원 : 34명(운영위원장협의회 17, 시·도의회 17)
- 연수국가 : 스위스, 독일



**대전광역시의회**  
(운영수석전문위원)

## < 목 차 >

I. 출장개요 및 일정 .....	2
1. 출장개요 .....	2
2. 참 가 자 .....	2
3. 주요일정 .....	3
II. 면담 주요인사 .....	4
III. 방문도시 및 기관 사전조사 .....	5
1. 스위스의 정치문화 .....	5
2. 스위스 국민의 참정권 .....	6
3. 스위스 글라루스 지역소개 .....	7
4. 도시재생 성공사례 .....	8
5. 추크와 크립토 밸리 .....	9
6. 스위스 제설업체 자우그 .....	10
7. 사계절 액티비티 천국 피르스트 .....	11
8. 독일 OLD TIMER 자동차 거래소 .....	12
IV. 출장 결과 .....	12
1. 글라루스 방문, 게마인데 前시장 간담회 .....	13
2. 도시재생 성공사례(Schifbau, Puls5, Im Viadukt) .....	17
3. 블록체인 크립토밸리 랩스(Crypto Valley Zug) .....	25
4. 제설업체 ZAUGG .....	28
5. OLD TIMER .....	30

## I

## 출장 개요 및 일정

## 1. 출장 개요

## ○ (목 적)

- 유럽의 선진 의회 및 시청, 시설 등을 시찰하여 지방자치제도, 정책 사례 및 스위스 글라루스의 직접민주주의 운영 방식 벤치마킹
- 지방자치활동 역량강화 및 취리히 도새재생사례 등 지역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활성화 도모

## ○ (출장기간) 2018.12.26.(수) ~ 2019. 1. 1.(화) / 5박 7일

## ○ (출장국가) 스위스(취리히, 베른 등), 독일(프랑크푸르트)

## ○ (연수인원) 34명 / 위원장 15명, 의회직원 17명, 협의회 2명

## ○ (주요내용)

- 스위스 글라루스 의회 운영실태 및 도시재생사례, 안전관리, 세계 문화유산보존 실태 등 선진시스템 벤치마킹
- 그린델발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고찰, 블록체인 기술 흐름 파악
- 독일 프랑크푸르트 시청 운영 및 연구·생산기업 지원 인프라 시찰 등

## 2. 출장 참가자 / 대전광역시의회

직위(급)	성명	성별	생년월일	비고
운영위원장	남진근	남	1959. 01. 07.	
행정7급	정헌학	남	1976. 01. 09.	

※ 전국시·도의회 연수자 명단 : 붙임 참조 (※ 불참 : 경남, 제주)

### 3. 주요 일정

일 시	지 역	일 정	비 고
1일차 12/26 (수)	인 천 취리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 출발/취리히 도착(자그레브 경유/15시간 15분)</li> <li>• 취리히 공항 도착 및 입국 수속</li> </ul>	
2일차 12/27 (목)	취리히 글라루스  취리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라루스 이동(약 1시간)</li> <li>• 공식일정: 글라루스 게마인데 前 시장 간담회</li> <li>• 취리히 이동(약 1시간)</li> <li>• 공식일정: 블록체인 크립토 밸리 랩스</li> <li>• 현장견학: 도시재생 사례 시프바우&amp;폴스5&amp;임바독트</li> </ul>	
3일차 12/28 (금)	취리히 베 른  에기윌  취리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텔 체크인 후 베른 이동(약 1시간 30분)</li> <li>• 공식일정: 스위스 연방의회</li> <li>• 현장견학: 스위스의 연방의회, 행정부(연방평의회)가 위치한 수도 베른 견학</li> <li>• 베른 구시가지 문화탐방 에기윌 이동(약 50분)</li> <li>• 현장견학: 스위스 제철 업체 1위 기업 ZAUGG</li> <li>• 취리히 이동(약 1시간 30분)</li> </ul>	
4일차 12/29 (토)	취리히 그린델발트 이베르동레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텔 체크인 후 그린델발트 이동(약 2시간 00분)</li> <li>- 그린델발트 지역경제 활성화 현황 벤치마킹</li> <li>• 현장견학: 이베르동레뱅 이동(약 2시간)</li> </ul>	
5일차 12/30 (일)	이베르동레뱅 바젤 프랑크푸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젤 이동(약 2시간)</li> <li>• 바젤역 출발/프랑크푸르트역 도착(약 2시간 55분)</li> <li>프랑크푸르트역 도착 후 입국 수속</li> </ul>	
6일차 12/31 (월)	프랑크푸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텔 체크인 후 공식일정</li> <li>• 공식일정: 프랑크푸르트 시청</li> <li>• 현장견학: 올드타이머 자동차 거래소 방문</li> <li>• 프랑크푸르트 공항 이동 후 탑승 수속</li> <li>• 프랑크푸르트 출발/인천 향발(10시간 25분)</li> </ul>	
7일차 1/1 (화)	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공항 도착 후 입국수속</li> <li>• 간단한 해단식 후 해산</li> </ul>	

## II

## 면담 주요인사

면담자	방문기관	면담내용	비고
Fridolin Hauser (글라루스 前시장) 외 의회관계자	Glarus parlia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의 조직 및 인력, 주요 기능 현황</li> <li>• 2019년 비전 및 전략목표 주요 사업방향</li> <li>• 2018년 주요성과 및 우수사례</li> </ul>	
Crypto Valley Zug CEO Mr. Ruch	CRYPTO VALLEY LA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회 조직 및 인력, 주요 기능 현황</li> <li>• 2019년 비전 및 전략목표 주요 사업방향</li> <li>• 2018년 주요성과 및 우수사례</li> </ul>	
CEO, Mr. Hans Greter	ZAUGG AG EGGW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의 조직 및 인력, 주요 기능 현황</li> <li>• 2019년 비전 및 전략목표 주요 사업방향</li> <li>• 2018년 주요성과 및 우수사례</li> </ul>	
Old Timer CEO, MR.Herr Johl	OLD TIM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의 조직 및 인력, 주요 기능 현황</li> <li>• 2019년 비전 및 전략목표 주요 사업방향</li> <li>• 2018년 주요성과 및 우수사례</li> </ul>	

### < 관련 사진 >



Fridolin Hauser 면담



Michelle oertle 면담



Greter Hans 면담



OLD TIMER manager 면담

### III

## 방문도시 및 기관 사전조사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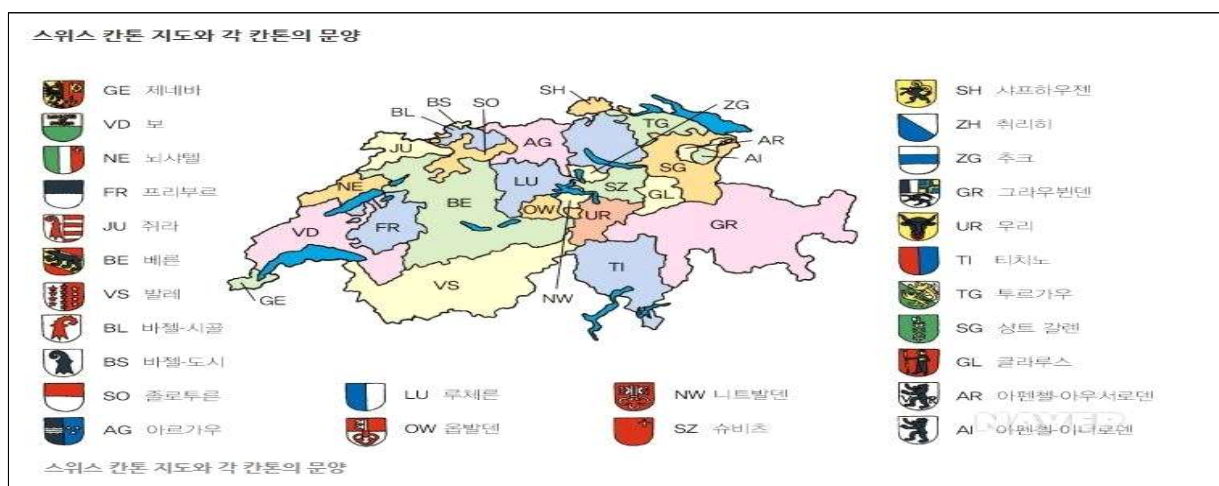
## 스 위 스

### 1. 스위스의 정치 문화

스위스 정치의 기본적인 가치관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이며, 이것은 유럽의 다른 국가와 함께 공유되어 온 것이지만, 연방국가인 스위스는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정치 문화를 형성하고 있음.

#### ○ 칸톤들의 모임, 스위스 연방

스위스는 험준한 산악 지대라는 지형적인 특징 때문에 역사적으로 국가 단위보다는 마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소규모의 정치 체제가 발달하였음. 현재 스위스를 이루는 세 개의 행정 단위는 연방, 칸톤(Canton), 게마인데(Gemeinde)임. 가장 기초가 되는 단위인 게마인데는 ‘지방자치단체’ 나 ‘군’ 으로 해석되며, 전국에 약 2천 8백 개의 게마인데가 있음. 게마인데가 모여서 칸톤을 이루며 칸톤은 독자적인 헌법을 갖고 게마인데를 감독하는 '주'의 역할을 함.





26개의 칸톤이 모인 스위스의 연방 정부는 통신, 외교, 관세 같은 특정한 업무만 담당할 뿐 입법, 사법, 행정 등은 칸톤 정부가 독자적으로 운영함.

## ○ 스위스 국민의 참정권

18세 이상의 스위스 국민들은 참정권을 행사하며, 참정권은 선거, 국민 제안, 국민 투표, 청원 등 네 가지 형태로 행사되고 있음. 이 중 국민 제안은 18개월 내에 1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연방 헌법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이렇게 올라온 제안은 국민투표를 통해 시행 여부가 결정됨. 여기에 스위스의 모든 국민은 국가 기관에 손해 보상을 요청하거나, 규칙을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청원의 권리도 갖고 있음. 스위스 국민들은 연간 5회 가량 각종 안건을 결정하는 국민 투표뿐 아니라 다양한 단위의 행정 담당자를 뽑는 선거까지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와 국민 투표에 너무 많은 시간이 빼앗긴다고 불평을 하기도 함. 그래서인지 투표 참여율이 40% 정도에 불과하여, 최근에는 우편이나 인터넷 등 다양한 투표 방식을 시도해 국민들의 참여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음.



글라루스 주의 란트슈게마인데

참정권을 가진 주민이 1년에 한 번 광장에 모여 의사를 결정하는 직접 민주 정치의 장이다.

## ○ 글라루스 지역 소개

- 일반현황 : 글라루스의 면적은 11,000ha이며, 칸톤의 인구는 39,500명임.  
칸톤에는 우리나라 기초 자치단체에 해당하는 3개의 게마인데가 있고, 이는 다시 29개의 마을로 나뉘어져 있음. 자연 지리적 환경으로는 고도차가 심한 가파른 계곡들이 많고 작은 면적에 비해 대조적인 기후상태를 보임. 문화적으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은 수준이고 스위스 중 가장 산업화된 지역임.
- 행정체계 : 칸톤의 행정부는 5개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5명의 각료가 각기 영역을 담당함.
  - 재정과 보건 : 개인과 조직, 목표, 건강, 칸톤 병원
  - 교육과 문화 : 초등학교, 평생교육, 직업교육, 스포츠와 문화
  - 건설과 환경 : 도로·수도·수리·제방 등 지하공사, 건축물 등 지상공사, 환경, 숲과 에너지
  - 내부 경제업무 : 농업과 일자리, 사회문제, 분배
  - 사법과 경찰 : 칸톤 경찰, 군대와 안보, 사법 등

### <글라루스 칸톤의 세 개의 게마인데>

게마인데	마을(개)	인구(명)	특징
북부	8	17,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과 무역이 발달한 지역, 취리히 지역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li> <li>· 풀타임 직 대표와 6명의 각료, 33석의 의원</li> </ul>
중부	4	12,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과 서비스의 중심 가장 도시적 마을</li> <li>· 풀타임 직 대표와 6명의 각료</li> </ul>
남부	17	1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업과 산업이 발달</li> <li>· 스위스에서 두번째로 큰 게마인데</li> <li>· 풀타임 대표와 4개 부처의 장, 10명의 각료</li> </ul>
계	29	39,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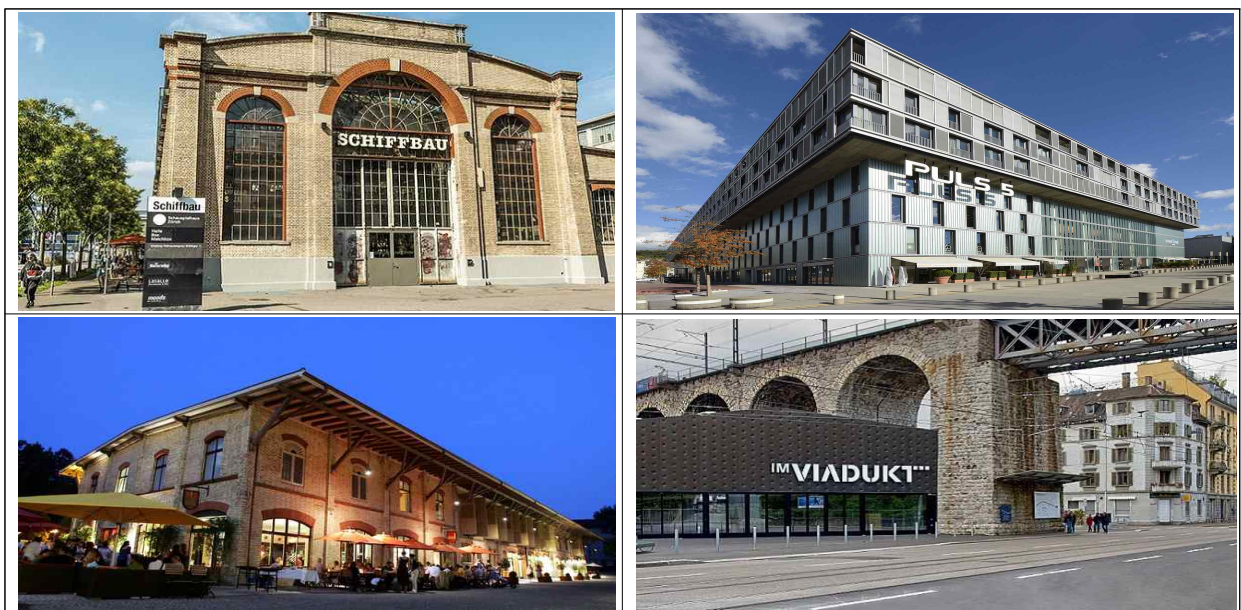


## 2. 스위스 취리히 도시재생 성공사례(시프바우 등)

취리히에는 30여년 전만 해도 맥주 양조장, 곡물회사, 비누공장, 조선소, 제철소 같은 각종 중공업 공장들이 모여 있는 약 139만㎡(42만평) 규모의 전형적인 도시 외곽 공업지대가 있었음.

이곳은 스위스 서부에 있어 ‘취리히 웨스트’라고 불렸는데, 1960년대까지 스위스 번영의 상징이었으나, 1980년대 들어서면서 인건비가 상승하자 1990년에는 대부분의 제조업 공장이 문을 닫았고, 취리히 웨스트는 낡고 우중충한 공장 건물, 허름한 저소득층 아파트에 온갖 낙서가 가득한 슬럼가로 전락해 30년 넘게 방치되었음.

취리히시는 이 버려진 공장지대를 새롭게 바꾸기로 결정하고, 끈질긴 노력 끝에 해당 지대를 문화예술·상업지구로 탈바꿈시켰음. 특히 이곳을 새로운 건물을 짓는 방법이 아닌, 공장지대에 있던 다양한 산업시설을 그대로 남기는 방법을 택하여 도시재생에 성공한 사례임. 예를 들자면, 폐조선소를 리모델링을 하여 만든 복합문화공간인 ‘시프바우’, 제철회사 주조공장을 개조하여 고급상점들을 입점시켜 쇼핑센터처럼 보이는 ‘풀스5’, 사용되지 않는 철로 교각 아래에 만든 장터인 ‘임비아독트’가 있음.



### 3. 스위스 추크와 크립토밸리(<https://cryptovalley.swiss/>)

스위스의 추크는 우리나라의 종로구 정도로 작은 동네임. 취리히나 베른 등 다른 유명한 도시처럼 구시가에는 아름다운 호수가 인접하고 있고, 도시의 한부분에 산업단지가 자리 하고 있음. 추크시가 암호화화폐의 성지로 불리게 된 것은 2013년경 이더리움과 모네타스가 추크에 회사를 꾸릴 때 행정지원을 빠르게 해준 덕분임.

추크시는 이미 지방세도 암호화화폐로 수령하고 있음. 스위스의 블록체인 기업은 무려 700개에 달하며, 이들 중 상위 50개 블록체인 관련 기업의 가치는 이미 무려 50조원에 달함. 블록체인과 관련된 자금이 추크로 향하자 스위스의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향상되었음.



#### 4. 스위스 제설업체 자우그(ZAUGG)(<https://www.zaugg-ag.ch>)

(주)아크윈이 공급하는 스위스 자우그(ZAUGG)는 유럽에서 인정받는 제설 장비 전문 메이커임.

스키장·골프장·공항·철도·도로 등의 제설에 대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제설장비만으로 명성을 쌓아 글로벌 공급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자우그의 제설장비 중 블로워 SF 시리즈는 크기별로 구분돼 다양한 모델을 라인업하고 있고 각 모델마다 작업폭 설정이 가능해 최소 80cm부터 최대 330cm까지 선택할 수 있음.

국내 골프장에 가장 적합한 모델인 SF 72는 트랙터 등에 장착해 사용할 수 있는 대형 제설장비로, 센터 드라이브 커팅 릴로 가장 어려운 제설환경에도 강력한 작업능력을 보여주고 있음.

G시리즈 제설 블레이드는 제설고와 폭, 블레이드 형태에 따라 15가지 모델이 있으며, 트립 엣지 시스템이 적용됐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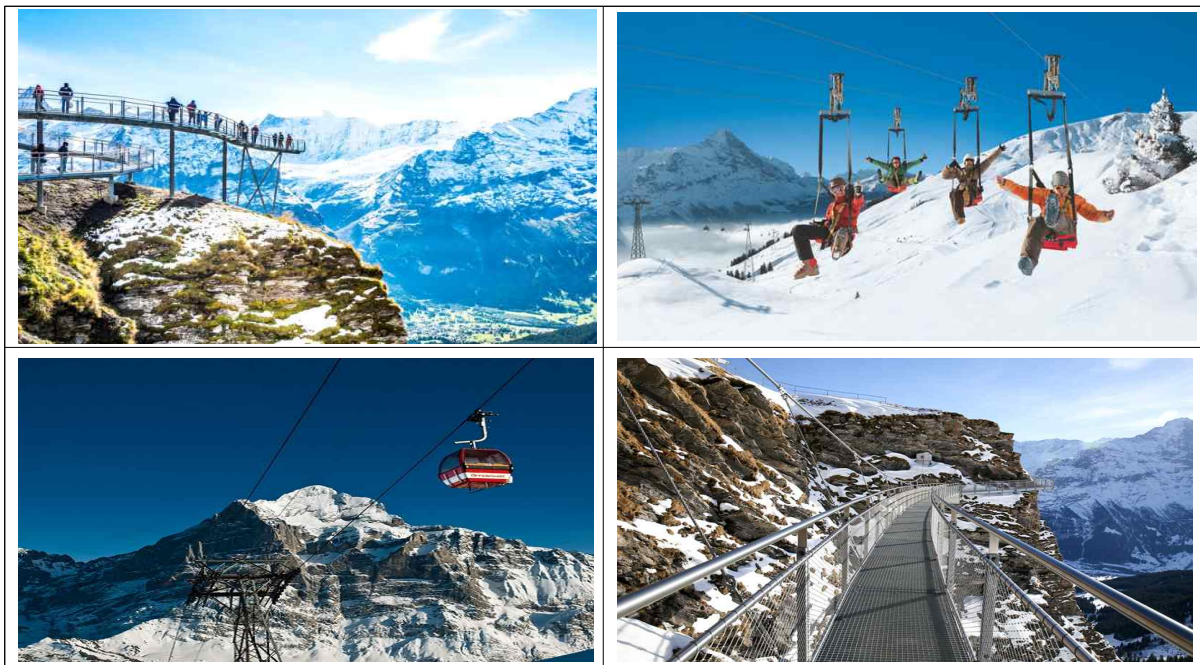


## 5. 사계절 액티비티의 천국, 피르스트(First)

휘르스트는 스키와 눈썰매의 명소로 매년 겨울 스위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몰려온 수많은 스키어를 끌어들이고 있는데, 겨울이 아니더라도 아름다운 바호알프 호수까지 이어진 하이킹 코스나 휘르스트 플라이어 같은 다양한 액티비티가 준비되어 있음.

4,000m가 넘는 봉우리와 빙하의 장관을 조망할 수 있는 휘르스트 지역은 베르너 오버랜드 지역에서 가장 손꼽히는 풍광을 간직하고 있고, 100km가 넘는 야생화로 뒤덮인 오솔길은 가벼운 산책길에서 밧줄을 이용하는 모험적인 코스까지 다양함.

특히 해발 2,168m의 휘르스트는 그린델발트에서 곤돌라를 타고 등정할 수 있고, 1947년에 체어리프트로 시작해서 1986년에 스위스 관광청과 긴밀한 협조로 만든 기획안에 따라 새롭게 태어난 휘르스트 케이블카는 25분 만에 4000m가 넘는 일곱개의 봉우리와 빙하의 장관을 볼 수 있는 휘르스트 정상으로 안내하고 있음.



## 1. OLD TIMER 자동차 거래소(<https://www.classicbid.de/de/>)

총 47개 업체가 조합형태로 컨소시엄으로 형성 운영되는 비즈니스이며, 올드 타이머에 특화된 법률 사무소, 부품 조달업체, 유지 보수업체, 도색업체, 공유 차량 서비스 업체, 판매업체 등까지 엮어 있음. 그리고 방문하는 거래소 장소에는 16개 업체가 상주해 있으며, 차종은 일반 세단에서 스포츠카까지 매우 다양하며, 람보르기니처럼 희소성이 강한 차량은 최근 생산되는 신종차량이라도 관리보수를 하며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



## IV

## 출 장 결 과

### < 글라루스의회 방문, 게마인데 前 시장 간담회 >

○ 일 시 : 2018. 12. 27.(목) 10:00

○ 면 담

- Landammann Dr. Andrea Bettiga(주지사)
- Landratspräsident-Stv. Dr. Peter Rothlin(주의회 부의장)
- Ratsschreiber lic.iur. Hansjörg Dürst(주의회 운영위원장 겸 주 정부서기)
- Fridolin Hauser(전 시장)

○ 내 용 : 직접 민주주의 운영 설명 청취 및 질의 응답

○ 면담내용

- 글라루스 주민들은 1년에 한번 투표자들이 야외의회를 위하여 야외에 모여 주 정부를 위한 대표자를 선출하고, 주 사업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룬다.
- 야외의회 란츠 게마인데는 참정권을 가진 주민들이 모여 의사결정을 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장이다.
- 란츠게마인데는 스위스 직접 민주주의에서 유래된 행사로, 이런 종류의 이벤트 중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이벤트라고 할 수 있다.
- 시민들은 시청사와 법정의 야외에 함께 모여 투표할 권리와 법률과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 최초 공식적으로 기록된 란츠게마인데는 1294년 열렸다.
- 중부와 동부 스위스에 속한 몇몇 주들과 슈비츠 주, 그라우뷘덴주의 행정 구역도 이런 직접 민주주의 형태를 띄고 있지만, 이는 오직 작은 지역에서만 가능하다.



- 1년에 한 번, 몇 천명에 이르는 투표자들이 야외 의회 즉 란츠 게마인데를 위하여 야외에 모인다.
- 그들은 주 정부를 위한 대표자를 선출하고 의회 관할 구역 내의 주와 관련된 사업과 관련된 문제들을 배치한다.
- 때때로 이 곳에는 참가할 수 있는 누군가가 제시한 사안으로 인하여 열띤 토론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투표는 거수로 이루어지며, 추정 여부는 대부분 경험 많은 남성에게 의해 이뤄진다.
- 의심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숫자 세기를 요청할 수 있다.
- 란츠게마인데는 덕망을 지닌 연배가 있는 지역 주민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특정한 전통과 형식이 유지되고 있지만, 장소에 따라 다른 형태를 보인다.
- 아펜젤 남성들은 검을 소지할 권리를 가진다.
- 글라루스는 토론 중 란담만 또는 지위가 가장 높은 공직자는 그가 지닌 지위의 존엄함의 상징처럼 개회 행사시에 공무용 검으로 자신을 지탱하고 있기도 한다.
- 슈탄스에서는 마을 밖에 있는 회합 장소로 걸어 나가는 신호를 그 옛날 전투를 상기시키는 오래된 뿔 나팔을 불어 알리고 있다.



글라루스 의회 앞에서



글라루스 의회 본회의장에서

## ○ 느낀점 또는 시사점

- 스위스 글라루스주의 란츠게마인데(Landsgemeinde, 주민총회)는 참정권을 가진 주민이 1년에 한번 모여 의사를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장이다.
- 이들은 세금인상, 공공장소 금연 문제 등 자신의 생활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주민총회에서 토론과 의결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결정한다.
- 800여년을 이어온 역사깊은 스위스의 직접 민주주의 제도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여성이 참정권을 얻게 된것은 불과 50년도 채 되지 않은 1971년이다.
- 아마도 거친 산악지형의 특성상 거친 외부환경이 남성들만의 사회활동을 허락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 직접민주주의 제도는 가끔 파격적인 결정을 하기도 하는 것 같다.  
2007년 란츠게마인데를 통해 글라루스 칸톤의 선거 연령 제한이 만16세로 결정되었다.
-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6월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만19세로 조정되었다.
- 세계 여러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지나치게 낮거나 높지는 않지만, 정치권에서는 선거연령 하향조정을 하려는 자와 그것을 막으려는 자가 존재한다.
- 적정한 선거연령이 얼마인지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는 없다.  
만약 선거연령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실시한다면 어떻게 될까? 결과야 어떻든 그 결과에 대한 반대의 촛불집회나 태극기 집회는 없거나 극히 소규모일 것이다. 왜냐하면 직접민주주의의 최대장점인 국민 자치의 원리를 가장 충실하게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 반면 대규모 집단에서 실시가 곤란하니 만큼 우리나라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시행한다면 여전히 관심 없는 이들의 의견을 반영되지 않을 것이다.
- 란츠게마인데는 대의 민주주의에서 올 수 있는 한계에 대해서 여러가지 보완책을 사용한다. 그중에서 대중발안제도와 국민투표 제도가 있다.

- 연방차원의 국민발안과 지방차원의 주민발안은 유권자들이 기준 이상의 서명을 모으면 연방헌법 및 법률 개정안을 발의 할 수 있고, 지방은 유권자의 약1%정도의 서명만 모으면 법률 개정안 발의가 가능하다.
  - 만약, 의회가 입법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 법 개정안은 물론 헌법개정안까지 발의해 국민투표 또는 주민투표를 붙일 수 있다.
- 우리의 대의 민주주의제는 무엇이 문제인가
- 먼저 국민들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 많이 신뢰하지 않는다.
- 따라서,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에 대하여도 그 순수한 의도로 봐주지 않고, 자신과 다른 정파에 소속에 의원들의 정책에 대해서는 설령 좋은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한다.
- 우리나라 대의민주주의 한계에 대해서 800년 역사의 글라루스의 직접 민주주의 정신을 벤치마킹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주요현장 사진



글라루스 주 의회 내부



글라루스 주 의회 앞에서



글라루스 주 의회



글라루스 주 의회

## < 스위스 도시재생 성공사례 >

○ 일 시 : 2018. 12. 27.(목) 15:00

○ 면 담 : Zurich West Tour Manager, Ms. Elisabeth Brem

○ 내 용 : 도시재생 사례

○ 주요 내용

- 1960년대 스위스 번영의 상징이었던 스위스 취리히 외곽 공업지대가 1980년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공장이 하나둘씩 해외로 이전하였고, 1990년대에는 대부분 제조업이 문을 닫았다.
- 취리히 시는 그 후 30여년간 흉물스럽게 방치되었던 이 도시를 문화 예술 · 상업지구로 변모시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현재 스위스의 핫플레이스가 되었다.



- 취리히에는 30여년 전만 해도 매연을 내뿜는 공장지대가 있었다.
- 맥주 양조장, 곡물회사 사일로, 비누공장, 조선소, 제철소 같은 각종 중공업 공장들이 모여 있는 약 139만㎡(42만평) 규모의 전형적인 도시 외곽 공업지대였다.
- 이곳은 스위스 서부에 있어 ‘취리히 웨스트’라고 불렸는데, 1960년대까지 스위스 번영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1980년대 들어서면서 인건비가

상승하자 핵심 공장들이 하나둘씩 해외로 이전했다. 1990년에는 대부분의 제조업 공장이 문을 닫았다. 취리히 웨스트는 낡고 우중충한 공장 건물, 허름한 저소득층 아파트에 온갖 낙서가 가득한 슬럼으로 전락해 30년 넘게 방치됐다.

- 전 세계 사람들이 꿈꾸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취리히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곳이 됐다. 취리히 시는 이 버려진 공장지대를 새롭게 바꾸기로 결정했다. 2000년대 들어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이 공장지대는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 시의 노력으로 문화예술·상업지구로 탈바꿈하기 시작한 것. 취리히시는 이곳을 깡그리 밀고 새 건물을 짓는 방법이 아닌, 공장지대에 있던 다양한 산업시설을 그대로 남기는 방법을 택했다. 이 공장지대는 재생에 성공했다.
- 취리히 웨스트는 20여년이 지난 지금 스위스의 ‘핫플레이스’가 됐다. 취리히 웨스트에는 1860년대 증기선을 만들던 조선소가 있었다. 영업을 중단한 이 조선소 건물에는 극장과 레스토랑 등이 들어섰다.

## ▶ 시프바우(Schifbau)

바로 폐조선소를 리모델링해 만든 복합문화공간 ‘시프바우(Schifbau)’라는 곳이다. 건물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며 리모델링해 노출된 배관 파이프나 녹슨 철근 같은 요소가 고스란히 남아있다. 이곳에는 저녁이면 취리히의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이 몰려들고 가족이나 연인들이 멋진 식사와 술, 공연을 즐기러 찾아오는 진풍경이 펼쳐진다. 일부러 남겨 놓은 낡은 철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천장이 높아 탁 트인 공장 특유의 넓은 실내가 나타난다.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 ‘라살’이 먼저 방문객을 맞이하는데, 이 식당은 취리히 사람들도 인정하는 유명 레스토랑이다. 실내 중앙에 자리한 재즈클럽 ‘더 무드’는 배관 파이프와 철근이 그대로 노출된 콘크리트 기둥 등을 인테리어 요소로 활용한 모습이 인상적이다.

## ▶ 폴스5(Puls5)

시프바우 바로 옆에 있는 복합공간 ‘폴스5(Puls5)’도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제철회사 주조공장을 개조한 이 건물은 외관을 완전히 새로 고쳐 얼핏 보면 갓 지은 쇼핑센터처럼 보인다. 각종 고급 상점들이 내부 가장자리에 입점해 있고, 중앙에 위치한 넓은 공간에는 기획 전시를 주로 하는 전시공간을 배치했다.

1층의 레스토랑 ‘그뤼세라이’는 이곳이 옛 제철소였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인테리어가 특징이다. 오래된 설비와 작은 용광로를 식당 홀 가운데와 벽 곳곳에 남겨둬 아주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 ▶ 임비아дук트(Im Viadukt)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철로 교각 아래에 2009년 새로 만들어진 ‘임비아дук트(Im Viadukt)’라는 장터는 인기있는 쇼핑 장소다. 아치형 철도 교각에는 세련된 그래픽디자인으로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다양한 매장과 클럽들이 자리하고 있어 손님들의 발길을 붙잡는다.

가게 수만 해도 50여 개나 된다고 한다. 사실 교각 아래 공간은 길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테마가 있는 상점거리와 비교했을 때 원래 용도만 다를 뿐이지 훌륭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셈이다. 교각에 다채로운 조명을 설치해 밤이 되면 일대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는 것도 임비아дук트의 큰 매력이다.



○ 느낀점 또는 시사점

- 도시재생이란 무엇인가? 인구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 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등으로 경제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것을 말한다.

<도시재생이 성공적인 예를 들어보면>

스페인 빌바오	스페인의 대표적 공업도시로서 조선업이 쇠퇴하면서 낙후되기 시작, 빌바오 시에서는 낙후된 지역에 아름다운 미술관을 설치하여 년 130만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
캐나다 그린빌 아일랜드	1910년대 공장지대를 형성했던 곳인데 1970년대 중공업이 경쟁력을 잃고, 급격한 도시 쇠락, 주 정부는 공업도시를 재생하기 위해 CMHC라는 공공기업을 설립하고, 사람 중심의 문화라는 새로운 가치를 바탕으로 island insight 프로젝트 실시 복합문화 상업공간으로 세계적 명소화

그리고, 2018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국외연수 기회로 방문한 시프바우, 플스5, 임비아독트가 있다.

▶ **시프바우** : 시프바우는 1860년대 작은 배를 만들던 조선소를 리모델링해서 만든 복합문화공간이다. 외부에는 과거 조선소의 분위기가 남아있지만, 내부를 들여다 보면 천장에 녹슨 철근이나 기계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하지만, 내부의 고급 레스토랑 '라살' 이나 재즈클럽 '더 무드'는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이고 실제로 음식 가격이 싸지 않다고 한다.

낙후된 공간이라는 이미지와 정반대인 고급 레스토랑을 도입시킴으로서 이미지의 시너지 효과를 얻었다고 생각된다.



시프바우(폐 조선소 활용사례)



시프바우(폐 조선소 활용사례)

### <우리사례 및 적용방안>

대전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다. '대청댐 부근 금강로하스 타워 뷰카페 아름'이 그것인데, 흙물스럽게 방치된 폐 취수장을 카페로 활용한 것이다. 실제로 카페의 지하에는 취수장비 등이 녹슨채로 있어 방문객들의 눈요기 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폐 취수장을 활용한 사례(아름카페)



폐 취수장을 활용한 사례(아름카페)

▶ 플스5 : 시프바우 옆에 위치한 주조공장을 활용한 건물로, 외부에 샷시를 덧대어 얼핏 보면 재생건물이 아닌 신축 건물로 보인다.

플스5는 거주공간과 레스토랑, 작업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부에 들어서면 우리나라의 대형마트처럼 양옆에 점포가 들어서 있고, 천장에는 주조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설비들을 그대로 설치되어 있다.

지역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시설물들은 가급적 최대한 보존하고 새로운 컨셉 도입을 통해 명소로 거듭났다.



플스 5 외부



플스 5 내부

### <우리사례 및 적용방안>

대전 도심이 둔산으로 이동하면서 대전의 발전을 이끌었던 중앙로 일대는 급격한 쇠퇴기를 맞이했다. 90년대 중반 대전시청을 비롯해 법원, 경찰서 등 행정기관의 이전이 가속화 되면서 도심공동화, 원도심 등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대전시는 도시재생본부를 출범해 (구)충남도청사와 충남도관사촌, 대전역 부근의 철도보급창고와 관사촌 등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한다.

문화유산이 아닌 일반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방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플스5의 사례를 적용하여 외관에 대한 개선으로 도시재생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 **임비아독트** : 예전부터 철도는 역주변은 발전되지만 단순히 열차가 지나는 교각이나 철도 부근은 소음, 진동, 위험성 때문에 사람들이 거주하기를 기피해왔고, 슬럼화되어 사회문제가 된다.

또,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철도 및 교각도 문제가 되는데 스위스의 임비아독트는 사용하지 않는 철도교각을 활용하여 2009년 임비아독트라는 쇼핑 장소를 만들었다.

아치형 철도교각에는 세련된 그래픽디자인으로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다양한 매장과 클럽들이 자리하고 있어 손님들의 발길을 붙잡는다. 가게수는 50개나 된다.



임비아 독트(1)



임비아 독트(2)

### <우리사례 및 적용방안>

우리나라에서는 철도교각을 활용하자는 목소리는 있었다. 일제강점기인 1903년에 건설된 밀양읍성 성돌로 건립된 교각 보존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고, 고가철도 교각을 활용하여 기업용 광고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실제로 안성선 옛 철도 교각을 활용한 안성 영봉정 스카이 가든 정도이다.

대전을 가로지르는 충청권 광역철도망을 활용하여 주변이 슬럼화 되지 않게 활성화 시키는 방안과 비래동 폐 고속도로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밀양강 철도교각



서울 2호선 고가철도의 교각



옛 철도교각을 활용한 안성 영봉정 스카이 가든



비래동 폐 고속도로

## < 블록체인 크립토 밸리 랩스 방문 >

- 일 시 : 2018. 12. 28.(금) 10:00
- 면 담 : Crypto Valley Zug CEO: Mr. Ruch
- 내 용 : 블록체인 기업 및 단체 유치, 지원 등
- 시설개요
  - 설립연도: 2017년 9월
  - 성 격: 블록체인 및 암호 스타트업을 위한 공동 작업공간 제공  
및 정기적인 밋업 개최 등 기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



- 구 성: 보험 플랫폼, 자산관리 플랫폼, 비트코인 채굴사업 등을 포함 100명 이상의 블록체인 관계자 입주
- 마케팅, 법률 및 소프트웨어 개발, 공유 업무 및 사무실 공간 임대 등
- 임대료 및 서비스 사용료는 크립토 밸리 랩스의 토큰으로 결제

## ○ 설립목적

- 블록체인 기업 및 단체를 유치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서, 블록체인 및 ICO 산업을 대변

## ○ 면담내용

- 블록체인의 성지라 불리우는 스위스 추크는 인구3만에 암호화폐기업만 4만개로 명실공히 블록체인의 심장이라 할 수 있다.
- 추크는 2016년부터 최초로 암호화폐로 세금을 받기 시작했다.
- 2013년 이더리움과 모네타스가 추크에 회사를 세울 때 빠른 행정지원으로 덕분에 이 도시는 블록체인의 성지가 될 수 있었다.
- 스위스가 무조건 규제를 완화한 것은 아니다. 적절한 규제를 가미한 시스템 등이 4만개 블록체인 기업을 몰려들게 한 비결이다.
- 이곳에서는 암호화폐 자금모집(ICO)이 합법이고, 블록체인 기업 누구나 사업자에 정부가 공간을 대여해준다. 월 20만원만 내면 사업자등록증 발급가능하다.

## ○ 느낀점 또는 시사점

- 2008년 세계4위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했고, 중앙집권적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 블록체인 기술은 그 뒤에 나오게 되었다.
- 블록체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장부에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여러대의 컴퓨터에 이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기술을 말하며 공공거래 장부라고도 한다.

- 중앙 집중형 서버에 거래 기록을 보관하지 않고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 내역을 보내 주며, 거래 때마다 모든 거래 참여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대조해 데이터 위조나 변조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 데이터가 수많은 개인에게 전송되기 때문에 해킹이 어렵고 데이터의 분산 덕에 데이터를 관리하는 비용, 시간이 절감되고 데이터의 안전성과 신뢰성 또한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 〈우리사례 및 적용방안〉

- 우리나라의 경우 노원구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지역화폐인 ‘노원(NW)’ 을 발행했고, 패션 스타트업 ‘실크로드’ 는 블록체인에 기반한 패션 플랫폼을 추진하고 있다.
- 의료부분은 블록체인 활용이 돋보이는 분야로 숨파운데이션과 동작경희 병원은 블록체인을 활용해 의료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한 병원경영정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 지난 몇 년간 한국에서는 실체없는 가상화폐 투기열풍으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였지만, 이제는 공공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해야 할 때가 되었다.
- 2016년 미국 유타 주에서는 공화당 등록 당원이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를 통해 공화당 미국 대통령 후보 지명에 참여하였고, 국내에서는 경기도 따복 공동체가 주민제안 공모 심사에서 블록체인 기반 투표를 적용한 사례가 있다.
- 온라인 투표 블록체인 시범사업도 본격화하여 선거에 소요되는 인적, 물적으로 소요되는 자원을 최소화 하고, 각종 의료산업 및 행정기관에 도입하여 절차 및 소요기간을 간소화 해야 한다.



블록체인 크립토 밸리 랩스(1)



블록체인 크립토 밸리 랩스(2)

## < ZAUGG(제설업체) 방문 >

○ 일 시 : 2018. 12. 28.(금) 15:00

○ 면 담 : Zaugg AG Egiwil CEO, Mr. Hans Greter

○ 내 용 : 스위스 제설 업체 운영 시스템 및 장비관리 등

○ 주요 내용

- 자우그는 유럽에서 인정받는 명품 제설장비 생산업체이다.
- 2018 년 평창 올림픽 동계 올림픽에서 ZAUGG Pipemonster가 장착된 수퍼파이프 스노우보드장을 만들었다.
- 끊임없는 혁신과 고객 요구에 대한 적응력 덕분에 회사는 최근 몇 년간 크게 성장했으며 현재 Eggiwil 및 Schüpbach에서 약13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 ZAUGG AG EGGIWIL 은 도로, 철도, 비행장 및 제설 작업을 위한 최신 제설 장비 개발 및 제조 분야의 세계적인 선두업체로 시립 기술 및 바닥 청소를 위한 특수 장비가 제공한다.
- ZAUGG 제품은 탁월한 스위스 품질, 탁월한 작동 안전성, 탁월한 작업 편의성 및 평범한 서비스 수명으로 잘 알려져 있어 최고 수준의 성능 및 비용 효율성을 제공한다.
- 끊임없는 혁신과 고객 요구에 대한 적응력 덕분에이 회사는 최근 몇 년간 크게 성장했으며 현재 Eggiwil 및 Schüpbach에서 약 130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 순전히 지역 이익 센터의 일부인 ZAUGG AGEGGIWIL은 또한 농업 엔지니어링 및 건축 서비스 (난방 / 위생)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 느낀점 또는 시사점

- 스위스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기후여건으로 제설업이 발달된 국가로 제설장비 역시 전문적이고 강력했다.
- 제조공장 내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으며 사장과 직원간의 대화에 격식이 없어 부자지간으로 오해할 정도였는데, 직급간 권위와 격차가 없는 모습에 스위스 특유의 문화를 엿볼 수 있었다.

- 국내 도로제설은 대부분 염화칼슘에 의한 제설로 도로, 자동차 그리고 환경에 안좋은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자우그(ZAUGG)사의 제설장비는 대부분 눈을 쓸어올려 길 밖으로 뿜어내는 환경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 길에 뿌린 염화칼슘 혹은 염화소듐으로 인해서 추운 지방에서 운행되는 자동차들의 차체부식이 더 빨리 진행된다. 염화이온이 철 및 강철의 부식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 또한 염화칼슘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동식물에 끼치는 영향도 적지 않고, 녹았다가 다시 얼어붙어 형성된 얇은 얼음 막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유발로 경제적 손실도 적지 않다.



## < 올드 타이머 자동차 거래소 방문 >

- 일 시 : 2018. 12. 31.(월) 10:00
- 면 담 : Old Timer CEO, MR.Herr Johl
- 내 용 : 문화와 역사가 함축된 비즈니스 모델 자동차 거래 등
- 주요 내용
  - 9,000m<sup>2</sup>의 면적의 경매 및 전시장과 고전차 등 약150개 정기적 차량 전시
  - 47개 업체가 조합형태로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되는 비즈니스로 법률, 부품, 유지보수 도색업체 등이 상주해 있다.



- 총47개 업체가 조합 형태로 컨소시엄 형성 운영되는 비즈니스로 올드 타이머에 특화된 법률 사무소, 부품 조달업체, 유지보수 업체, 도색업체, 공유차량 서비스 업체, 판매업체까지 엮여 있으며 16개 업체가 상주해 있다.
- 차종은 일반 세단에서 스포츠카까지이며 람보르기니처럼 희소성이 강한 차량은 최근 생산되는 신종차량이라도 관리·보수한다.

## ○ 느낀점 또는 시사점

- 문화와 역사를 같이 판매하는 새로운 산업영역을 구축하여 일자리 부가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 오래된 차는 낡은 차가 아니라 유산이자 산업이라는 생각이다.
- 아무리 역사를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면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다. 서구의 클래식카와 클래식카를 복원하는 시장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 클래식카를 소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품 하나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돈을 아끼지 않는다고 말하며 이런 점에서 비즈니스 차원에서 분명 좋은 기회이다.
- 클래식카 시장은 자동차 선진국에서 일종의 취미이자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 우리에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을 보유한 자동차 강국의 반열에 올랐고 이에 걸맞는 다양한 자동차 문화를 꽃피워야 한다.
- 하지만 국내에서도 중고차 시장에 올드카 매물이 늘어나는 추세고 중고차 거래사이트 보배드림에는 1980년부터 1999년 사이에 생산된 차량 등록건수가 2015년 236대에서 지난해 306대로 29.6% 증가했다. 지난해 중고차 거래사이트 SK엔카닷컴에 올라온 구형 겔로퍼와 프라이드 차량은 500여 대에 달한다.

- 이런 사업을 우리의 환경에 적용하자면, 역사적인 원도심 건물이나 오래된 건축물들에 대한 자재 조달업체, 도색업체, 임대(대여)업체 등을 엮어 가치사슬을 창출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 주요현장 사진



[별첨]

## 〈 전국시도의회 국외연수 참가자 명단 〉

 **총 34명 / 위원장 15, 직원 19** (4급 2, 5급 5, 6급 이하 12)

연번	소 속	직 위 (직급)	성명		성별	비고
			한 글	영 문 (여권)		
1	서울	위원장	서윤기	SEO YOUN GI	남	
2		임기제 5급	박태헌	PARK TAE HUNE	남	
3	부산	위원장	노기섭	NOH Gi Seob	남	
4		행정7급	박민규	PARK Min Gyu	남	
5	대구	위원장	이만규	Lee Man Kyu	남	
6		별정4급	박재봉	Park Jai Boong	남	
7	인천	위원장	노태손	NOH TAE SON	남	
8	광주	위원장	이경호	LEE KYEONG HO	남	
9		행정7급	고윤희	KO YUN HO	남	
10	대전	위원장	남진근	NAM JIN KEUN	남	
11		행정7급	정헌학	JEONG HEON HAK	남	
12	울산	위원장	안도영	AN DO YOUNG	남	
13		4급	신정성	SHIN JUNGSUNG	남	
14	세종	행정6급	박소정	PARK SO JEONG	여	
15		위원장	이재현	LEE Jae Hyeon	남	
16	경기	행정7급	김승환	KIM Seung Hwan	남	
17		위원장	진용복	JIN Yong Bok	남	
18	강원	행정5급	한재홍	HAN Jae Hong	남	
19		행정7급	윤종훈	YOON Jong Hun	남	
20	충북	위원장	원태경	WON TEA KYUNG	남	
21		행정5급	전혁찬	JEON HYUK CHAN	남	
22	충남	위원장	김영주	Kim Yeong Joo	남	
23		행정6급	전상권	Jeon Sang Kwon	남	
24	전북	행정7급	이충민	Lee Chung Min	남	
25		위원장	김형도	KIM HYEONG DO	남	
26	전남	행정7	이복남	LEE BOK NAM	여	
27		위원장	김대중	KIM DAE JUNG	남	
28	경북	행정5급	전웅용	JEON UNG YONG	남	
29		행정7급	김윤경	KIM YUNKYEONG	남	
30	경남	위원장	서동욱	SEO DONG WOOK	남	
31	제주	위원장	박용선	PARK YONG SUN	남	
32		행정7급	김재일	KIM JAE IL	남	
33	협의회	행정5급	이학규	LEE HAK KYU	남	
34		행정6급	김효정	KIM HYO JUNG	남	

※ 경남, 제주 불참